

프랑스 FRANCE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여성 관련 정책의제

곽서희 |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교(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프랑스에서는 2022년 4월 10일,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재임 중인 에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과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대표인 마린 르펜(Marine Le Pen) 후보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4월 24일에는 두 후보의 결선투표가 실시되었다. 본 원고에서는 프랑스에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두 후보가 제시하는 여성,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제나 공약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지 개괄해 보고자 한다.

우선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년 임기 동안 양성평등을 우선 정책의제 중 하나로 추진했고, 여러 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여성 피임약 무료 처방 대상 확대(2020년 15세 이하에서 2022년 25세 이하로 변경), 합법으로 인정하는 임신중지 기간 연장(12주에서 14주로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폭넓은 여성정책들을 추진했다. 또한 폭력을 행사한 바 있는 가해자가 피해 여성으로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24시간 핫라인 개통 및 운영 등도 성과로 볼 수 있다.

2022년 3월, 대통령 1차 투표를 앞두고 프랑스의 세 시민단체인 Oxfam France, Equipop, Care France는 지난 5년간의 양성평등 정책 변화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목표는 원대했지만 결과는 미미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예를 들어 양성평등을 목표로 마련된 정책은 국가 전체 예산의 0.25%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며(2022년 기준), 여전히 3명마다 1명꼴로 프랑스 여성들이 현 또는 전 배우자에게 살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랑스 여성단체들은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구조적, 제도적 변화와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프랑스 여성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여성 살해(femicide), 이슬람 여성에 대한 혐오, 남녀임금격차,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 문제 등 현 프랑스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2월에는 프랑스의 여성단체 대표 또는 단체 내 고위관리자 7명이 주간지 르 주르날 드 디망슈(Le Journal du Dimanche)를 통해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10가지 의제에 대한 공동서명을 발표한 바 있다. 본 발표문에서 제시한 10가지 정책 제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정폭력 철폐를 위해 연간 10억 유로 예산(한화 약 1조 3490억 원): 폭력 피해여성을 대변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역량 강화, 관련 기관 재정 지원
- 여성 대상 폭력 철폐를 위해 국가 차원의 논의 기구 조직(예: 대통령 직속 산하 기구)
- 여성 대상 폭력 관련 사법 기량 및 인력 역량 강화
- 헌법에 임신중지 합법화,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접근성 보장
- 아동의 동성, 성(sexuality) 교육 보장, 음란물 사업으로부터 아동 보호
-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보전 서비스 접근성 보장
- 남녀동등한 임금, 시간제 일자리 강요나 직장에서의 남녀 차별 문제 해결
- 여성의 경제적 해방(economic emancipation)을 위한 법률 제정, 여성 고용 불안정성을 높이는 기존 제도적 장치 철폐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여성 근로자의 유급 출산휴가 확대, 부모 양육 모두 활용할 만한 육아휴직 제도
- 외교 정책에서 실질적인 여성주의적 관점 도입,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 차원 재정 기여 증대

르펜 후보는 스스로 여성주의자(feminist)라고 칭한 반면, 정치적으로 극우 성향과 결합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르펜 후보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한 매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프랑스 여성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발표하였는데, 본 발표문에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이민자들을 성범죄자로서 규정하고 추방하겠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었다.

프랑스의 여성단체 ‘Osez le féminisme’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발언 등이 얼마나 여성의 권익을 고려하고 옹호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성주의적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파비엔 엘 쿠리(Fabienne El-Khoury) 대변인은 단체의 정치적 성향은 없고 한 정당에 치우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르펜 후보 측이 제시하는 공약 프로그램은 여성 대상 폭력 철폐나 남녀임금 불평등 문제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지 않다. 르펜 후보는 인종차별적(racist) 관점에서 외국인들을 공격해야 할 때만 여성 권리를 언급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르펜 후보 측이 만든 정책 공약집에서 여성 관련 정책은 전혀 없으며, 가족 정책 분야에서 출산 및 육아 관련 부분에 걸쳐 2번 정도 여성이 언급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파리 근교 한 도시에서 폭력 피해여성에게 심리를 제공하는 단체인 ‘Maison des Femmes’ 설립자이자 산부인과 전문의인 가다 아템 감처(Ghada Hatem-Gantzer)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여성들 중에는 외국인 이민자 여성들도 있는데, 르펜이 당선되면 외국인들의 의료 접근성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면서 “르펜에게 한 표 던지는 게 여성을 위한 투표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소개한 10대 제안에서 서명하기도 한 여성단체 중 하나인 ‘Fondation des Femmes’의 안-세실 말페르(Anne-Cecile Mailfert) 대표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르펜 후보의 여성, 양성평등 관련 인식과 정책방향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녀는 “대통령 후보가 여성이라고 해서 꼭 여성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다. 르펜 후보는 극우 노선에 서있는 후보일 뿐이며, 대개 극우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여성의 권리는 후퇴한다. 그녀가 스스로 본인과 결을 같이 한다고 언급하는 헝가리 총리, 브라질 대통령 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다른 여성단체 대표 역시 지적한 부분이다.

여느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대통령 결선투표 결과는 여성 및 양성평등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어떤 여성 관련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여성 대상 폭력 해결과 같은 현안이나 후보 측이 내세운 여성 관련 공약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내 남녀임금격차 줄어드나

김준혜 | 세인트조셉 대학교 (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최근 미국의 민간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대도시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들의 임금을 뛰어넘고 있다고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250개의 대도시 중 뉴욕(New York),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를 포함한 22개의 대도시에서 일하는 서른 살 이하의 여성의 임금이 남성 상대방에 비해 더 높다. 하지만 이 결과가 미국 내 대부분의 여성의 임금이 높다가나 최근 남녀 임금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선부르다. 이 결과는 250개 대도시 중 22개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국 내 대부분의 상근직 직장인 여성은 여전히 83센트(cents) 대 1달러(dollar) 비율로 남성에 비해 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NPR, 2022). 또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남녀의 불평등은 더 심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직접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벌이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직장인의 남녀임금격차는 최근 몇 년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의 참여 정도가 남성에 비해 코로나19를 겪으며 심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으며 직장을 잃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특히 저학력 성인들의 경우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3/4분기 이후 모든 25세 이상 여성의 실업률이 1.3%였던 것과 비교해 남성은 1.1%였으며, 고등학교 학력 이하 여성의 경우 실업률이 12.3%인 것과 비교해 남성은 4.9%인 것으로 나타났다(Pew Research, 2022). 왜 저학력 실업률이 타격이 집중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분석은 다양하다. 그중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도시의 여성들이 종사하는 서비스직의 직업군이 코로나19를 겪으며 폐업하게 되면서 여성들의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동안 자녀 돌봄 및 가정 내 가사책임이 여성들에게 떠넘겨지게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고용시장의 남녀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상당하다(NPR, 2022).

코로나19의 여파가 저학력에게 더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나 고학력의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의 조사에 따르면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학력의 여성들도 코로나를 겪으며 가정 내의 가사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엄마 된 벌(mom penalty)’를 받고 있기에 전에 유지하고 있던 생산성(productivity)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NPR, 2020). 따라서 여성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여성의 전통적인 가정 역할에 인한 책임이 겹치지면서 남녀 사이의 불평등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Joe Biden)은 2021년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을 맞아 진행된 행사의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은 정의를 위해 싸웠고 장벽을 부숴왔으며, 경계를 일으키고 부흥시켰으며 위기의 순간에도 커뮤니티를 이끌어갔고 존엄성과 결단력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여성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너무나 자주 그녀들의 누려야 할 자유와 참여권과 공평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상 행정명령을 내렸다(NPR, 2022).

그중 하나는 백악관(White House)에 젠더정책심의회(Gender Policy Council)를 설립한 것이다. The White House Council on Women and Girls라고 불리는 비슷한 심의회가 오바마 정부에도 존재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해체되었다. 바이든 정부는 성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심의회를 설립을 추진하면서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들도 보호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여성 심의회가 아닌 “젠더정책심의회”로 이름을 바꿔 설립할 것을 명하였다(NPR, 2021). 이번에 설립된 젠더정책심의회는 최초의 성 형평성과 평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낙태법부터 이민자 권리까지 40페이지가 넘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젠더정책심의회가 설립된 이후 바이든 정부는 남녀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남녀평등을 이끄는 중요한 걸음이라 밝히며 여성의 노동시장을 확대하고 워킹맘을 포함한 워킹가족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역설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정부 및 연방정부 계약자 채용 시 지원자의 급여 이력 및 정보를 묻지 않도록 규제하였다(The White House, 2022). 과거 이력을 묻지 않았음으로써 새로운 연봉 책정 시 과거의 연봉을 기반하기보다는 경력 등 더욱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할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금 투명성(pay transparency)을 보장하는 것이 남녀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CNBC, 2020). 임금 투명성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은 주(States) 및 시(Cities)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현재 14개의 주(States)에서 지원자의 급여 이력을 물을 수 없게 하는 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California)의 경우 Equal Pay Act를 통해 2018년 1월 미국 내 처음으로 임금 이력을 물을 수 없게 하였고 뉴욕시는(New York City)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기업의 모든 구인 광고 시 최저 및 최고 임금 표시를 의무화하였다(CNBC, 2022).

현재 바이든 정부 아래 남녀평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다. 그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효과적인지는 알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러한 정책의 실행은 아주 중요한 첫 단계이며 앞으로 꾸준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에서의 노력뿐 아니라 더 많은 주(State) 차원의 정책도 실행 및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JAPAN

일본, 여성활약추진법(개정)의 의무 대상 확대

전여주 | 동국대학교법학부 법학정책연구소 연구보좌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커리어에서의 활약을 목표로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큰 허들이 존재한다. 또한 가깝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여성이 커리어에서 활약하며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러한 점은 실제로 여성이 관리직이나 고급인재로서의 활약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와 관리직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현저한 차이를 보여, 직장 생활 내에서 여성의 활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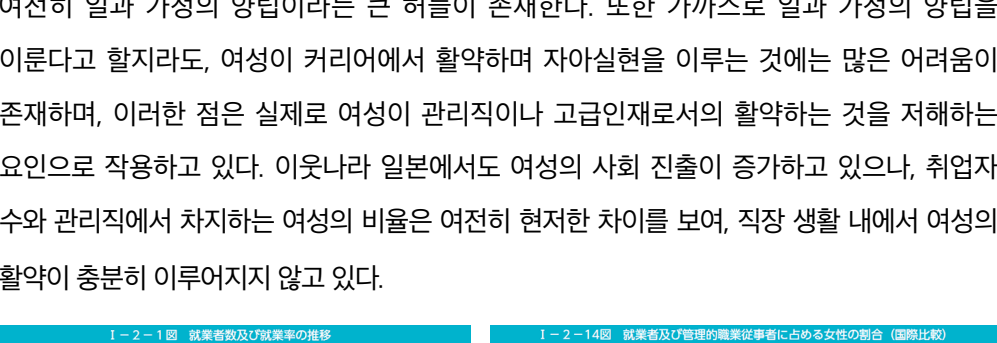


그림1 취업자 수 및 취업률의 추이 (노란색: 여성, 초록색: 남성)

출처: 閣府男女共同参画局(내각부 남녀 공동 참획국) <男女共同参画白書 令和3年版>

그림2 취업자 수 및 관리직 직종중시자에서 여성의 비율(국제비교) (빨간색: 취업자 수, 파란색: 관리직중)

출처: 閣府男女共同参画局(내각부 남녀 공동 참획국) <男女共同参画白書 令和3年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2015년 여성활약추진법(女性活躍推進法)(정식명칭: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 향진에 관한 법률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 신설되었다. 이 법률은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남녀의 인권이 존중되고,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국민 수요의 다양화 및 그 밖의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풍요롭고 활력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법률을 설명한 자료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기존에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젊은이나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인제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여성의 활약 추진을 통해서 다양한 인재의 확보와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조사결과를 통해 여성의 활약 추진이라는 것은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일하기 쉽고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여성의 활약을 위한 정책이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러한 법이 운용되고 있다는 근거자료로 주목할 만하다.

해당 법률은 1) 여성에 대한 채용, 교육훈련, 승진, 직종 및 고용 형태의 변경, 그밖에 기회의 적극적인 제공과 활용을 통하여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가족을 구성하는 남자가 성별을 불문하고 상호 협력과 사회의 지원 하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하면서 직업생활에서의 활약을 하는 데에 필요한 환경을 정비하여 남녀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이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3) 여성의 직업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관한 본인의 의사자 존중되도록 주의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상시 고용하는 노동자수(정규직뿐 아니라 파트타임,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 301명 이상의 사업주는 여성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계획을 책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들은 1) 자사의 여성의 활약에 관한 상황 파악 및 과제분석 시행, 2) 상황 파악 및 과제분석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책정, 제출, 공표, 3) 여성의 활약에 관해서 정보 공표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한편, 2019년 5월 29일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 성립되고 같은 해 6월 5일 공포되어 해당 법률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취지는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자가 활약할 수 있는 취업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일반사업주행동계획 책정의무의 대상 확대, 정보공표의 강화, 파워 하라스먼트(power harassment)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고용 관리상 조치 의무 등의 신설, 성희롱 등의 방지 대책 강화 등의 내용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여성활약추진법(女性活躍推進法)의 시행에 따라, 상시고용 노동자 수가 301명 이상의 사업주의 일반사업주행동계획 및 정보 공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들은 1) 여성노동자에 대한 직업생활에 관한 기업업의 책임, 2)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기여하는 고용환경의 정비에 관한 각 부분에 대하여 한 가지 항목 이상을 선택하여 각각 관련된 수치 목표를 정하는 행동 계획을 책정하는 의무(2020년 4월 1일 시행)를 지게 되었으며, 정보 공표 항목은 1) 직업생활에 관한 기회의 제공에 관한 실적, 2)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기여하는 고용환경의 정비에 관한 실적에 관한 항목에 구분하여 각 구분으로부터 1항목 이상을 공표해야 하게 되었다(2020년 6월 1일 시행).

또한 특례인정제도를 창설하여 여성의 활약 추진에 관한 상황 등이 우량한 사업주를 인정(에루보시 등급)해서 이보다 높은 수준의 “플라티나에루보시”단계를 도입하여, 이러한 인정(에루보시&플라티나에루보시)을 받은 기업은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인정을 마크를 상용해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플라티나에루보시” 등급의 인정을 받은 기업은 일반사업주 행동 계획의 책정 및 제출이 면제되게 되었다(2020년 6월 1일 시행).

그런데 이번 2022년 4월 1일부터는 개정된 여성활약추진법에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의무를 지는 대상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상시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가 101명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 행동 계획의 책정과 정보 공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서도 여성의 활약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의 책정과 공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해당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상 기업들이 여성의 활약을 위한 행동 계획을 책정하고 공표하며, 정부의 인증마크를 통해서 평가받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반 기업 관리직 여성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2년 4월부터는 대상 기업의 폭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기업에서 여성의 활약을 추진하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당 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도 존재한다. 여성활약추진법은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아베 신조 정권의 목표 하에서 만들어졌으나, 이에는 사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발상이 들어가 있으며, 실제로 해당 법의 시행 이후 일하는 여성은 늘었으나, 상당수는 불안정한 처지의 비정규직에 해당한다고 하며, 남녀임금격차의 문제도 미해결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또한, 그러한 문제는 최근의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되어, 비정규직 여성들이 실직하고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외출 지속으로 인한 가정 내 폭력의 피해 상담 건수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비판을 포함하서서 해당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경우, 해당 법의 성립, 개정 및 실시로 인해, 보다 많은 여성이 직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 내 노력이 촉진된 점을 평가할 수 있으나, 해당 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의 여성 활약 이외에도, 여성의 정규직 진입 및 임금 격차의 문제, 또한 팬데믹 이후의 이러한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여성이 임은 실질적 생활의 타격 등 해결이 필요한 다른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일본 정부도 위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다해서 모색 중인 것으로 보여, 다른 정책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기대하며, 그 효과를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CNN (2022.04.07), “The quest for equality: What’s at stake for women in the French election”, <https://edition.cnn.com/2022/04/07/europe/macron-french-presidential-election-equality-as-equals-intl-cmd/index.html> (접속일: 2022.04.23).
- FigaroVox (2022.03.07), “Marine Le Pen: Lettre aux Françaises”, <https://www.lefigaro.fr/vox/politique/marine-le-pen-lettre-aux-francaises-20220307> (접속일: 2022.04.23).
- France 24 (2022.03.30), “Five years of Macron: A gap between words and action on presidential priorities”, <https://www.france24.com/en/france/20220330-five-years-of-macron-the-gap-between-words-and-action-on-president-s-priority-issues-part-4-of-4> (접속일: 2022.04.23).
- Le Journal du Dimanche (2022.02.05), “Tribune: Candidats, engagez-vous sur les 10 mesures de notre plan d’urgence pour l’égalité femmes-hommes”, <https://www.lejdd.fr/Societe/tribune-candidats-engagez-vous-sur-les-10-mesures-de-notre-plan-durgence-pour-egalite-femmes-hommes-4092062>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